

금요 양성 2024년 7월 12일

## 성 프란시스와 성체 성사 (단위 형제회와 나누시오)

7월은 예수님의 고귀한 성혈 성월이며, 또한 3년에 걸친 성체 재인식 (Eucharistic Revival)을 기념하고 있으므로, 이번 달에는 이전에 개재했던 성체에 대한 양성 중 몇개를 다시 연재 하겠다.

성 프란시스는 그의 삶과 영성의 중심을 그리스도의 육화, 즉 그리스도의 인성에 두었다. 하느님이 인간으로 태어나심으로, 십자가 위에서의 수난과 죽음을 겪으심으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성체성사를 세우심으로 당신 자신을 “낮추셨음”에 경탄해 했다.

“살아 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께서”(요한 11,27) 사제의 손 안에서 제대 위에 계실 때 모든 사람은 두려움에 싸이고 온 세상은 떨며 하늘은 환호할지어다! 27 오 탄복하올 높음이며 경이로운 공손함이여! 오, 극치의 겸손이여 오, 겸손의 극치여! 우주의 주인이시며 하느님이시고 하느님의 아들이신 분이 이토록 겸손하시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찮은 뺨의 형상 안에 당신을 숨기시다니! 28 형제들이여, 하느님의 겸손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분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쓴으십시오”(시편 61,9). 그분이 여러분을 높여 주시도록 여러분도 겸손해지십시오(참조: 1베드5,6; 야고 4,10).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당신 자신 전부를 바치시는 분께서 여러분 전부를 받으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것 그 아무것도 여러분에게 남겨 두지 마십시오. ([형제회에 보낸 편지: 아씨시의 프란치스코와 글라라의 글 186-187 쪽](#))

“10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사제 자신들도 받아 모시고 사제들만이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주는 주님의 지극히 거룩한 몸과 피가 아니고서는 이 세상에서 하느님의 지극히 높으신 아들을 내 육신의 눈으로 결코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유언: 아씨시의 프란치스코와 글라라의 글 292 쪽](#))

“2 내가 나 자신에게 하는 그 이상으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적당하고 필요하다고 여겨지면 성직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간청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히 거룩하신 몸과 피와..... 그 무엇보다 공경해야 합니다. ([보호자들에게 보낸 편지 1: 아씨시의 프란치스코와 글라라의 글 149 쪽](#))

“우리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히 거룩하신 몸과 피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공경과 모든 영예를 나타내 보이십시오. 13 그분 안에서 하늘과 땅에 있는 만물이 전능하신 하느님과 평화롭게 되었고,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참조: 콜로 1, 20) ([형제회에 보낸 편지: 아씨시의 프란치스코와 글라라의 글 184 쪽](#))

“이는 내 몸이며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는] 새로운 계약의 내 피다(마르14, 22, 24). 11 그리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요한 6,54). 12 그러므로 당신을 믿는 이들 안에서 머무르시는 주님의 영이 주님의 지극히 거룩하신 몸과 피를 받아 모시는 것입니다. 13 바로 이 영을 지니지 않은 채 감히 주님을 받아 모시는 모든 사람은 “자신에 대한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1고린 11,29)”. ([권고들: 아씨시의 프란치스코와 글라라의 글 270-271 쪽](#))

“또한, 우리는 실로 사제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23 그리고 사제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십니다. 그분의 살을 먹지 않고 그분의 피를 마시지 않는 사람은(참조: 요한 6,55,57)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요한 3,5)... ([신자들에게 보낸 편지 2: 아씨시의 프란치스코와 글라라의 글 175 쪽](#))

“프란시스는 성체에 대하여 아주 자주, 심지어는 가난에 대해서 보다 더 자주 말씀하셨다. 그에게 있어서, 성체는 신비나 상징을 넘어 선, 살아있는 인격체다. 이 인격체는 예루살렘에서 갓 태어난 아이처럼 연약하고 방어력이 전혀 없는 존재로서 한 인간의 손 안에 온전히 넘겨지는 그리스도이다. 이런 생각으로 인해 제대위에서의 성체 성사와 관련된 모든 것에 예민해 졌고, 교회의 성스러운 용기인 성작과 성배의 존엄과 청결에 대해 철저했다.

“(Raniero Cantalamessa, O.F.M. Cap “*It Is Not Good For Man to Be Alone*”: *Clare and Francis: 아씨시의 글라라: 초기 문헌 11쪽*)

번역문 출처: 프란치스칸 사상 연구소 프란치스칸 원천 1권 *아씨시의 프란치스코와 글라라*

Barron주교님의 성체에 대한 좋은 비디오:

[https://www.youtube.com/watch?v=sgy\\_TFelyiM&t=126s](https://www.youtube.com/watch?v=sgy_TFelyiM&t=126s) (Real Presence)

성체 재인식 ( Eucharistic Revival) 웹사이트를 방문해 보시오: <https://www.eucharisticrevival.org/>

토의나 저널 기록을 위한 질문:

- + 위의 인용문들을 읽으시오. 프란시스 성인이 말한 것 (그리고 성체에 대한 헌신에 대해서 말한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성체에 대한 자신의 감정이 어떤지 살펴보시오.
- + 가톨릭 신자로서, 또 프란치스칸으로서의 당신에게 성체 성사가 왜 중요합니까?
- +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을 모시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합니까?
- + 성체가 프란치스칸 영성에 어떻게 결속되어 있습니까?
- + 회칙 어디에 성체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까? (서문에 대해서도 말해 보세요.)